

광양 ‘1천만 관광객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구체화

중간보고회서 구봉산권 관광사업 ‘윤택’ 케이블카·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등

광양시가 민선 8기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1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관광 개발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22일 광양에 따르면 최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주재했으며, 관계 부서장과 ㈜LF리조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설

치를 위한 시·종점 및 노선 구상, 연계 활성화 시설 계획, 구봉산권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험형 조형물로 구성된 구봉산의 3대 핵심 관광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구봉산 정상과 어린이테마파크를 잇는 케이블카, 구봉산전망대에서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봉화산을 잇는 ‘세계 최장 골든출렁다리 770’ 등을 조성해 매력도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3년 12월 ㈜LF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LF리조트가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양시가 최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설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구봉산권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중에서도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얼마 전 개장한 ‘구봉산 숲속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구봉산 종합관광개발 사업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 마을주치의 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 ‘톡톡’

현장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이 최근 대상자를 가구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방문 가정은 고령의 거동 불편자로, 욕창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하나 평소 병원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원장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등 방문보건인력 4명이 동행해 혈압, 혈당 체크 등의 기초건강검사를 하고, 기본 진찰 및 건강상담 실시, 욕창드레싱 및 관리, 생활 속



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사진>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공공의료의 본질”

이라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이웃처럼 함께하는 지역사회 보건요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마을 주치의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 등 방문보건인력이 동행해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맞춤형 진찰·건강상담 ▲간호지시서를 통한 처치(욕창·褥瘡·소변줄 관리 등) ▲생활 속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자 한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은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갱신받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대변인, 아동참여단 등 참석해 군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념 현판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화순군은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갱신받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대변인, 아동참여단 등 40여명이 함께 모여 군청 현관에서 기념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고, 4년 동안의 아동정책과 아동친화 공간 조성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게 될 아동친화 정책과 사업 등을 계획해 지난해 12월 인증갱신을 신청한 결과 지난 5월 서면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과, 지난

2일 최종 확정을 받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회를 매년 내실 있게 운영해 아동의 정책·사업 제안 기회제공, 아동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아동참여기구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제2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오는 2029년 6월1일까지 4년간 유지되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14개 부서에서 49개 사업으로 확대·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캠페인 확대 ▲미취학 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아동권리대변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침해사례

관리·고충 처리 ▲다양한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참여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을 사회의 주제로 존중하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번 갱신을 계기로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해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동친화도시를 비롯해 여성친화·고령친화도시로서 전 세대를 배려하고, 소통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3천원의 행복’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

매주 화·목·금 운영…일반 3천500원

장성군은 “최근 삼서면 공중목욕장(삼서면 해삼로 1138·사진) 준공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삼서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없었다. 목욕탕에 가려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해 불편이 뒤따랐다.

장성군은 전남도에 공중목욕장 건립을 건의해 도비 포함 20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3년부터 현 위치에 건립을 시작했다.

준공된 삼서면 공중목욕장은 약 120평 규모(대

지면적 1천75㎡, 바닥면적 410㎡)로 냉온탕, 사우나,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어린이·노인 3천원, 일반 3천500원이며 매주 화·목·금요일에 운영한다. 이용 시간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은 삼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는다. 이용문의는 직통전화(061-394-0806)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삼서면민들의 숙원을 이룰 수 있어 뜻 깊다”며 “주민 건강 증진과 소통, 교류의 장소로 사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새마을회, 입장권 사전구매 협약

시민 참여 견인 전환점 기대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 예술랜드에서 여수시새마을회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정식에는 정기명 조직위원장과 여수시새마을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사전 봄 조성을 위해 여수시새마을회에서 3천만원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여수시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복지향상, 주민 역량강화 등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다. 지속적인 나눔과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정신 함양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동근 여수시새마을회 회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다시 한번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은 “이번 입장권 구매약정은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발점이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수시새마을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오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두 달간 울산 진도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와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김전선 기자

순천만습지-도심 잇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

200억 투입…길이 165m·왕복 4차선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습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2년6개월의 공사 끝에 길이 165m, 왕복 4차선 규모의 신규 교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개통된 교량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 1등급 교량으로 최대 4등급 중차량 통행이 가능한 안전 구조를 갖췄다.

또한 지방하천 이차천의 유수 흐름을 고려해 기존 11개 교각을 2개로 줄인 3경간 구조로 설계

됐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도사동 통천정미소까지 왕복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량 개통으로 도심에서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주요 병목 구간이 해소돼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교량은 1967년 건설돼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한 후 재가설하게 됐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군, 고품질 조생 복숭아 본격 출하

아삭한 식감·높은 당도 ‘인기’

고흥군은 “최근 조생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어 최근 출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흥산 조생 복숭아는 481ha, 94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2025년 농촌진흥청의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 장비, 해충 발생 밀도를 줄이는 친환경 교미교란제, 이상기상에 대응하



기 위한 미세살수 장치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진 기자